

취 임 사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신영석입니다.

우선 이태수 전임원장님이 퇴임하신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무탈하게 연구원을 지켜주신 강혜규 부원장님을 비롯 각 실·단장, 센터장,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대부분 저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저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 1997년 3월 1일 보사연에 입사한 후 2023년 2월 말까지 만 26년 재직 후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재직 당시에는 연구조정팀장, 연구조정실장, 사회보험실장, 사회보장실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보사연에서 재직할 당시 주로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수가, 보험료, 전달체계, 재정, 상대가치, 의료인력 등이 주요 주제였습니다. 사회보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의 책임을 맡았을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 사회서비스 제도, 저출산고령화 관련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터치해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오래 전 일입니다.

이번 보사연 원장에 지원하기 위하여 보사연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 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에 대해 주마간산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연구기획, 경영지원 파트에 대한 것은 간혹 만나는 직원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 연구원에 재직했었지만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취임 첫날이어서 제가 향후 보사연 원장으로서 연구원 운영 방침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이나 자칫 설부른 방향 제시가 여러분의 생각과 거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1달 정도 여러분과 교감 후에 연구원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변하지 않을 3가지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입니다. 세대간, 직급간, 전공분야간, 남녀간, 연구와 지원 파트간 충분한 의견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재직했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시너지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가족보다 물리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합니다. 서로 얼굴보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입니다. 우리 보사연의 카운트 파트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모든 정책 결정은 보사연의 연구와 밀접하게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기를 희망합니다. 보고서, 포럼, 이슈엔포커스 등 연구 결과가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보건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에서 우리 직원의 괄목상대할 역할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정책 결정에 보건사회연구원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국책연구원의 위상을 결정하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도 개인 단위의 기여가 대단히 큰 직원도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한다면 조직 차원의 접근을 할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폭 넓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 일과 가정이 상호 보완되면서 양립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실 일보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요소가 서로 균형있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과 뜻을 모아보겠습니다. 직원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폭이 넓어지면 각자의 가정에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간 여러분과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고민을 나누겠습니다. 4월 조회에서는 오늘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9개월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임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25년 2월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영석